‘하모니’ ‘의형제’, 외화 장기집권 끝내나

하모니

월드스타 김윤진·나문희 호흡
관객 눈물샘 자극 인기몰이
개봉 8일만에 100만명 넘어서

〈하모니〉

〈강동원〉

〈송강호〉

1천만 관객을 넘어서며 외화 최고 관객을 동원한 ‘아바타’ 열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우치’가 600만명을 동원하기는 했지만 ‘주유소습격사건 2’ 등 기대작들이 별다른 힘을 못쓰면서 지난해 12월 17일 개봉한 아바타는 7주 연속 관객 동원 1위를 차지하며 승승장구중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하모니’ 등 개봉작들이 아바타 독주에 제동을 걸고 있다.

눈에 띄는 작품은 ‘하모니’다. 지난달 28일 개봉 후 8일만에 관객 100만명을 넘어선 ‘하모니’는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인기몰이중이다.

신예 강대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하모니’는 여자교도소를 배경으로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진 주인공들이 음악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남편의 폭력으로 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정애, 한 순간의 실수로 사형수가 된 여교수, 생활고 때문에 사기를 저지른 화자, 힘 조절을 잘못해 살인을 저지른 프로레슬러 출신 연실 등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죄수들이 정혜의 제안으로 ‘합창단’을 만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하모니’가 상영되는 극장은 눈물바다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찔레꽃’ 등 영화 속에 등장하는 노래들은 극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월드스타 김윤진을 비롯해, 설명이 필요 없는 연기파 배우 나문희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중인 박준면·정수영과 ‘해운대’에 출연했던 강예원 등이 가세했다.

의형제

최고스타 송강호·강동원 주연
한국 영화로는 15주만에
‘아바타’ 누르고 예매율 1위

지난 4일 개봉한 ‘의형제’는 개봉전 시사회 등을 통해 평단과 관객들이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최대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국내 최대 인터넷 영화 티켓 예매 사이트인 ‘맥스무비’에 따르면 ‘의형제’는 한국영화로는 15주만에 예매 1위를 차지했다 ‘마이클 잭슨의 디스 이즈 잇’부터 지난 주 ‘아바타’까지 14주 동안 이어온 외화의 예매 1위 행진을 끝낸 셈이다. ‘의형제’는 티켓파크, 티켓링크, 네이트 등 타 사이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의문의 총격전에서 처음 만난 국정원 요원 한규와 남파 공작원 지원.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한규는 국정원에서 파면당하고, 지원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 북에서 버림받는다.

6년 후,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의 신분을 속이고 각자의 목적을 위해 함께하게 되고, 적에서 친구로, 남자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의형제’가 기대를 모으는 건 바로 출연배우들의 내공 덕이다. 충무로 최고의 스타 송강호는 이 작품에서 맛깔스런 대사와 다채로운 표정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특히 ‘반칙왕’, ‘살인의 추억’ 등에서 보여줬던 특유의 자연스러운 코믹 연기는 압권이다.

‘M’, ‘전우치’ 등을 통해 한창 무르익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강동원이 투톱으로 출연하며 킬러 역을 맡은 전국환 등 조역들의 연기도 눈길을 끈다.

소지섭과 강지환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는 영화다’로 충무로에 데뷔, 찬사를 받았던 장훈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도 만만찮은 실력을 선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춤추는 꿈틀이 밴드

디스코에 푹 빠진 개성 만점 지렁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덴마크 산 애니메이션이다.

디스코 음악에 중독된 댄스 신동 배리는 TV에서 슈퍼스타 콘테스트 소식을 보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친구들을 불러 모은다.

몸매는 예쁘지만 음치인 코러스 글로리아, 뚱뚱이 베이스트 ‘티토’, 헤비메탈 매니아인 기타리스트 지미, 배리의 직장 상사인 드러머 도나는 ‘꿈틀이

디스코에 빠진 지렁이들
‘꿈틀이 밴드’ 결성
땅속 마을 최고 스타 꿈꿔

밴드’를 결성, 땅속 마을 최고 스타를 꿈꾼다.

하지만 이들은 하찮은 지렁이라는 이유로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고 인기 가수 토니의 방해 때문에 목숨까지 위협 받지만 도전을 굽히지 않는다.

꿈틀이들이 부르는 ‘I will survive’ ‘Yes, I can boogie’ 등 1970~80년대 주옥같은 디스코 음악들이 영화 보는 재미를 더한다.

이케아, 콥시, 칼스버그 등 유명 브랜드의 CF 감독으로 이름을 알린 토마스 보르히 닐슨의 첫 애니메이션 연출작이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